

불교수행과 서구 심리치료가 만났다

18일 광주 명상상담아카데미 개강 심리학 전공 인경 스님 직접 지도

불교수행과 서구 심리치료 기법을 활용해 마음과 육체의 안정을 추구하는 명상상담 아카데미가 광주에 문을 연다. 명상상담 아카데미 광주전남지구(지도법사 인경 스님 · cafe.daum.net/medicoun)가 11월 18일 오후 7시 광주 백운동 광남빌딩 5층에 70평 규모의 법당을 개원한다. 명상상담 아카데미는 불교수행에 애니그램(enneagram-성격유형검사)을 접목한 수행법의 하나로 현대인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살펴 해결점을

찾도록 하고 있어 생활속의 불교수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울, 경남에 이어 광주에서 개원하는 명상상담 아카데미는 명상전문 수련과정과 명상상담 불교대학, 명상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신입생모집에 들어갔다. 심리학을 전공한 인경 스님(명상상담원구원장)이 직접 지도하는 명상전문수련은 초기불교수행의 하나인 호흡, 감각, 느낀 등을 관찰하는 기초과정에서 간화선 수행으로 들어가는 고급반까지 6개월 과정으로



18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광주 명상상담 아카데미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 불자들이. 18일 개원하는 광주 명상상담 아카데미는 명상상담 공부를 하던 이승만(법공), 엄

장애전담 보육시설 순천 우석어린이집 개관



조계종 제21교구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가 올해 8월 순천시로부터 수탁한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우석어린이집이 11월 10일 개관식(사진)을 갖고 문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흥선사 주지 정환 스님, 장애전담보육시설협회 김중호 회장, 순천시 의회 최병준·서동욱·정달영 의원, 순천 YMCA 최영자 회장, 순천불자연합회 조경태 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을 연 우석 어린이집은 순천시 서면 선평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601평, 연면적 235평 2층 건물로 지역 최초의 장애아 동시시설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송광사가 지역사회의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애전담어린이집에 더 많은 관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다양한 행사로 나눔의집 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급 자리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이 11월 16일 서울 KBS홀에서 '나눔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는 베토벤, 푸치니 등의 명곡을 연주하는 1부와 경희대 음대 옥길성 교수가 작곡한 '아, 밥달 사람들' 중 일부를 공연하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날 행사 입장권 판매와 현장에 마련된 성금 부스를 통해 모인 성금은 모두 나눔의 집에서 건립 추진 중인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기금으로 사용된다. 이밖에 '나눔의 집'은 나눔의 집 생활관에서 11월 19일 '창작21작가회' 초청 시낭송회, 26일 전국동화구연가협회 회원 주권 구연동화 시범 및 위모존치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031)768-6684-5 김강진 기자

마산 해암사, 해수관음보살 조성

마산 구상면 광암부락에 위치한 해암사(주지 덕도)는 광암부락 앞바다에 해수관음보살을 조성하고 10월 22일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미륵불교 종정 법련 스님과 총회회장 정승 스님, 승정원장 만오 스님, 권영회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해암사는 또 300여 명 가량 승선이 가능한 배에 해상법당 조성을 최근 완료하고, 방생법회 등 해상법당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다. 한명우 기자

남해 미륵암, 불우이웃 위안잔치

남해 삼동면 미륵암(주지 청운)은 10월 30일 경내에서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초청해 위안 잔치를 열었다. 신도회장 이종수 거사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위안잔치에서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했다. 주지 청운 스님은 "신도가 중심이 돼 개최한 위안잔치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군포 법해사 수계법회 봉행

군포 법해사(주지 법해)는 11월 6일 대법당에서 고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2005년도 신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500여 신도가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고산 스님은 "계는 간직하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받는 것"이라며 "지계를 통해 불교를 생활화하며 깨달음의 길로 한 발씩 다가서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법해사는 3년마다 한 차례씩 10계와 48경계를 함께 주는 전통적 방식의 보살계 수계법회를 열고 있다. 한명우 기자

비구니 전문선원 법륜사 개원

낙성법회 3000여명 참석...수행·휴양시설 갖춰



용인 법륜사는 10여년의 불사를 마치고 11월6일 낙성·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비구니 스님 전문선원 법륜사(주지 정엽)가 불사를 시작하지 10년 만에 문을 열었다. 법륜사는 11월 6일 수덕사 방장이자 법륜사 조실인 원담 스님과 단양 방곡사 화주 묘허 스님을 증명으로부터 부처님 점안 및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예산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과 수좌 설정 스님, 보은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 경주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 前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스님, 수원 봉녕사 강원 강주 묘엄 스님, 서울 진관사 주지 진관 스님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용인 원삼면 고당리의 4만여평에 자리를 잡은 법륜사는 128평의 대웅전을 비롯해 33평의 조사전, 53평의 극락전, 아(阿)자형 종각, 삼성각, 연화지, 어영지 등을 갖췄다. 주법당인 대웅전은 백두산 홍송을 들여와

남방불교 양식의 아(阿)자형으로 건립, 십육척 53톤 중량의 석불을 봉안했다. 법륜사는 앞으로 기도와 수행도량으로서의 위상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00평 규모의 요사채와 84평 규모의 비구니선원, 194평의 비구니스님을 위한 휴양당 등 대규모 숙박 시설과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공간을 완비했다. 500여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요사채에서는 침실과 공양간, 회의장 등을 갖춰 대규모 수련회가 가능하다. 선원과 휴양당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로 사용되며, 일반 불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불사를 이끌어 온 법륜사 회주 상륜 스님은 "관음기도도량과 비구니 선지식을 배출하는 전문선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용인=박봉영 기자

파라미타 '청소년 문화존' 성료

37개 학교 5천여명 참여
천연염색 등 체험코너 인기

파라미타청소년문화회(회장 원택) 주관으로 열린 '청소년문화존' 행사가 서울시 청소년들의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청소년문화존'은 문화공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흥미로운 강좌와 체험, 즐거운 놀이를 즐길만한 공간을 제공하는 행사. 서울시와 파라미타가 연계해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 우정공원에 마련한 '청소년문화존'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천연염색 및 매듭공예, 등공예 체험 코너가 진행돼 중·고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 '2005 북촌·인사동 체험'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탐방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11월 5일 폐막되기까지 5개월여 동안 진행된 행사에 참가한 인원은 동대부중·부고 및 양강중 구정중 등 37개 학교 5천여명이나 된다. 조한근 사무과장은 "내년에도 지역의 전통문화와 불교를 접목시킨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에 공모해 청소년문화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광주 덕림사 시왕재·경로잔치

"삶·죽음 의미 되새긴 하루"
노인들에 돌보기 500개 증정도

명부(冥府)의 시왕을 통해 업장참회와 밝은 미래를 펼치고자하는 '시왕재'가 11월 6일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에서 봉행됐다. 지난 7월, 덕림사 지장보살상과 시왕상이 문화재(지방유형문화재 27호)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열린 이날 시왕재는 광주 영산회소속 스님들의 작법과 육법공양, 살풀이 등으로 펼쳐졌다. 시왕재 의식에 이어 덕림사 회주 법현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명부의 시왕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여의고 행복의 삶으로 이끄는 천왕이다"며 "시왕재를 통해 삶



덕림사 시왕재 작법공연. 과 죽음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덕림사는 시왕재에 이어 경내에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66세이상 노인인 1000여명을 초청해 점심공양과 경로잔치를 펼쳤다. 글·사진/광주=이준엽 기자

"함께 부처님 모셔요" 대웅전 소실 흥복사 거리모금



김제 흥복사(주지 우진) 신도회와 청년회가 '대웅전 복원을 위한 거리모금'에 나섰다. 지난 10월 22일 금산사 개산대재에서 거리모금을 펼치고 있던 주지 우진 스님은 "소납의 부덕으로 10월 3일 대웅전과 목조삼존불(유형문화재 181호)이 전소됐다"며 "김제 불교의 중심인 흥복사 대웅전과 부처님을 빠른 시일내에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흥복사 대웅전 복원 추진위 권두삼 위원장도 "불의 화재로 불교세가 열악한 김제 지역 불교가 힘을 잃고 있다"며 "복원불사에 사부대중의 동참을 호소한다"며 주말이면 신도들과 거리모금운동에 나서고 있다. (063)547-7364 (농협 507-01-022285 예금주 흥복사) 이준엽 기자

奉 德菴堂 興德大宗師 涅槃 二週忌追慕 및 淨屠塔碑 除幕式 行

三寶에 歸依하옵고

德菴堂 興德大宗師 涅槃 二週忌追慕祭와 淨屠塔碑 除幕式을 아래와 같이 奉行하오니 宗團 元老大德 스님과 宗徒 四部大衆 및 門徒께서는 무루 참석해주시기 仰望하나이다.

- 다 음 -

日時 : 佛紀 二五四九年 十一月 三十日(陰 十月 二十九日) 水曜日 午前 十時
場所 : 太古叢林 仙巖寺 淨屠殿

佛紀 二五四九年 十一月 日

韓國 佛教 太古宗 總務院長 李 雲 山 合掌
德菴和尚 門徒會長 慧 俊

